땅에서 천국을 노리는 자들

(마태복음 16:1~4)

1.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3.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궂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4.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땅에서 천국을 노리는 자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땅에서 천국을 노리는 자들'
예수님께서는 앞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도 "…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복하신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가 되어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짐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반대로 무언가 꺼림칙하다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이한 꿈이나 환상을 보았을 때에 옛날 같으면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기라도 했겠습니다만 예수를 믿는 입장에서 그럴 수는 없으니 예언 기도를 하는 사람을 찾아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교회에서 말씀이 적힌 구절을 제비를 뽑으며 "금년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겼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새해에는 으레 운수대통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안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바로 곁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꿈이나 계시나 환상을 보셨든지 그 모든 것보다 우선 됩니다. 또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진로 문제, 결혼 문제 등의 어떤 문제들보다도 우선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대고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내 아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계시는 너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상의 계시가 없고 이 말씀 이상의 복된 말씀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십자가 생활화를 할 것이고,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면 십자가 생활화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입니다.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은 꿈이나 계시나 환상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독생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 죽었다. 지금 당면한 삶의 모든 문제의 현장에서 죽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너의 삶은 나의 주권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뚜렷하고 멋진 최고의 계시는 없음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앞서 12장에서 제자들이 시장하여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먹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정말로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라며 다시 시비를 겁니다. 암행어사에게 마패가 있듯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하라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표시를 드러내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특징적인 점은 서로 앙숙이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사회를 주도하던 3대 분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엣세네파였습니다. 이 중에서 엣세네파는 세상을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대중들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회지도층으로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주로 반목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서로 앙숙이었던 이유는 교리적 사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내세 즉 천국의 존재를 믿었고 부활과 천사에 대해서도 믿었습니다. 한편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 오직 현세에만 작용한다고 여긴 현실주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내세를 믿지 않았으니 천국과 부활과 천사도 믿지 않았고 모세오경 외에는 정경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 이외의 다른 성경들을 인정하였고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삶의 규범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이들이 연합할 수 있었던 이유를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땅에서 천국을 노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입으로는 천국과 부활과 천사를 언급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세상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고, 사두개인은 세상만이 유일한 가치라고 노골적으로 믿으면서 세상을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히 바리새인들의 말과 마음이 일치하지 않는 이중적 행태를 두고 이들을 위선자로 비난하셨습니다. 천국을 믿고 내세를 믿고 천사를 믿는 사람들이 천사가 살고 있는 천국을 좋아하는 대신에 이 세상을 좋아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두개인들이 바리새인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구했던 표적이란 출애굽 때의 열 가지 재앙이나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려오는 것과 같은 기적들이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로 무리를 먹이셨으며 불치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인간으

로써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얼마든지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무시하고 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궂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녁노을이 보이면 다음 날 날씨가 좋고 아침노을이 보이면 그 날은 날이 궂겠다는 것은 기상에 대한 특별한 지식이 없을지라도 살다보면 경험적으로 얻게 됩니다. 날씨에 대한 예측과 같이 특정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마주하다보면 경험적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기적들을 계속해서 보았다면 당연히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결코 이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사두개인들은 천국을 아예 믿지 않았으니 무조건적인 반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믿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논란이 되었어야만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곧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보좌를 펼치고 앉아계시고 천사들이 보좌를 받들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아파트 투기 열풍이 한창일 때에 전국에 아파트를 30채나 사들인 분이 있었습니다. 이 분이 아파트를 30채나 사들일 때에 돈에 대한 열정이 어떠했을지 어렵지 않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천국이 가까이 와서 마음을 천국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면 우리가 어떠한 열정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는 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활동은 혁명적 변화의 표적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러한 표적을 거부합니다. 이들의 마음이 악하고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파에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속해있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로 사회지도층으로써 활약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살인을 한 적도 없고 간음을 한 적도 없으며 도둑질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악하고 음란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곧 가까이 온 천국에 대한 마음 상태가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아무리 천국의 표적을 보여주셔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가까이 온 천국은 마음으로 느끼고 들어가야만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음란한 마음 상태에서는 천국의 표적을 볼 수 없으며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

을 근거로 하여 마음의 차원에서 천국을 정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관적인 차원에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보좌를 펼치시고 천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곳이며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곳입니다. 이러한 천국은 미국이나 중국이 존재하듯이 객관적 사실로써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음의 차원에서 천국을 정의하자면 천국은 곧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나는 변화산 사건이 이러한 모습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천국의 모습으로 변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 산 아래에서 꿈꾸었던 모든 일들을 망각하게 됩니다.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으로 느끼는 천국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주부가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은 30평대 신축 아파트면 좋겠다. 남편의 수입이 고정적으로 500만 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성적은 중위권 이상만 되면 좋겠다. 일 년에 한 두 번씩 해외여행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되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겠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소원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가 천국입니다.
심지어 관계에서도 더 바랄 것이 없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고정적으로 한 달에 400만 원만 손에 쥐어주면 더 이상 바라지 않겠다.'라고 하면 남편에 대한 관계에서 천국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는 것은 천국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엄마는 네가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단지 서울에 있는 대학만 들어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단다.'라고 했다면 자녀에 대한 관계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천국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소원이 나오지 않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은 절망에 빠졌을 때에 희망조차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천국은 희망이 필요 없는 상태입니다.
마음에서 느끼는 천국을 이렇게 정의해본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함과 음란함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천국의 상태를 이 땅에서 추구하고 희망하는 것이 악하고 음란한 마음입니다. 반대로 악하고 음란하지 않은 마음이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를 하늘에서 추구하고 희망하는 마음입니다. 다시 말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과 밀착되기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여길 수 있다면 이것이 천국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악함과 음란함이 없는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를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하늘로부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가 주어지기를 기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천국의 상태를 땅에서 찾고 기대하고자 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정에 대한 관계에서, 직장에 대한 관계에서, 나라에 대한 관계에서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단 한 순간도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상태를 향하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많은 기적들을 무시하고 새로운 표적을 요구했던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이들은 땅에서 천국의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나라를 독립시켜준다면 더 이상은 바랄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메시아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더 확장시켜 주고 유지시켜 주면 더 이상은 바랄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이러한 천국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이방인과 창녀와 세리들과 어울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 또한 이들에게는 별 볼일 없는 것으로밖에는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그려놓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조짐이 예수님에게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을 만족 시킬 수 있는 새로운 표적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마음을 악하고 음란하다고 보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들과 같은 마음 상태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4절에서 이들을 향해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 줄 표적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땅에서 천국을 노리는 자들"로부터 "하늘의 천국을 노리는 자들"로 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나오게 된 사건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이 땅에서 천국을 노리는 악하고 음란한 마음을 하늘로 바꿀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음을 인정하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기 전까지는 하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곧 천국을 향하는 표지판입니다. 땅에서 천국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늘을 가리키는 사건은 십자가 사건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 생활화의 의미를 한 가지 예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가출하고 말썽만 부리는 자녀를 가진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 어머니가 "아이가 공부는 못할지라도 가출하지 않고 말썽만 부리지 않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로써는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을 마

주한 입장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를 자녀와의 관계에서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서 천국을 찾으려는 악하고 음란함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일 때에 비로소 하늘을 향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천국의 상태는 오직 하늘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하늘을 향하게 될 때에 자녀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고 오히려 자녀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배우자에 대해 바라지 않고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바라지 않고 건강에 대해 바라지 않게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 할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마음이 땅에서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 천국을 보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된 상태에서도 지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은 사는 동안에 어디에 있든지 지상에서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바울과 실라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꼬에 채워져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얻어맞은 자리에는 피가 나고 고통에 시달렸으나 오히려 기도와 찬양을 하였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밀착시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가 되기를 추구했던 것입니다.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밀착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기대하면서 하늘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 대해 아무것도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되자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차꼬가 풀려지고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지상천국은 추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를 추구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십자가에서 다 죽을 때에만 하늘을 향할 수 있습니다. 하늘로 향하고 주님과 아버지가 하나 되신 것처럼 나도 주님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에 오히려 지상천국은 덤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천국을 바라고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지상천국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천국을 찾을 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늘에서 하나님과의 밀착상태를 이루기를 기대하고 기도와 간구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움으로 살아갈 때에 지상천국은 감옥에서도 일어나고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는 본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악하고 음란할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바랄 것

이 없는 단계까지 진전되기를 바랄 것이고, 오고가는 계약과 거래가 이루어지기를 바랄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마음이 작동되면서 이 땅에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임을 고백하여야만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밀착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은 없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십자가에서 주님과 연합하고 부활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가 된 삶의 현장은 천국이 임하는 자리로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천국을 그리워하고 하늘의 천국을 가진 자들만이 이 땅에서도 전혀 바랄 것이 없는 마음가짐이 되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고개를 쳐들고 나타나는 우리 마음의 악함과 음란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노리려는 못된 기질이 죽게 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의 밀착만을 천국의 상태로 기대하고 바람으로써 이 땅조차도 천국이 임하는 역사가 경험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